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노동 생산성 2022년 이래 처음으로 하락세
- WSJ: 지난주 실업 청구 건수는 줄었다
- WSJ: 연준은 다른 중앙은행들과 달리 금리 인하하지 않는 이유

#### [미국 금융]

- WSJ: 연준 금리 동결과 미·중 협상 앞두고 증시 상승

#### [물류]

- WSJ: Maersk, “컨테이너 수요는 미·중 협상에 달려있다”

#### [관세 전쟁]

- WSJ: 미·영 관세 타결...영국산 차 10%로
- WSJ: IMF, “미 관세로 아시아 성장 둔화 예상은 아직 일러”
- Bloomberg: 애플과 GM 등 미국 기업들 관세 비용 수백억 불 피해

#### [주택]

- Bloomberg: 뉴욕시 주택 구매자들, 불확실성 속에서도 매입 추진

#### [오일]

- Bloomberg: 미·영 관세 타결 소식에 오일 상승세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NBusiness: 애플, 사파리에 AI 검색엔진 도입 검토
- WSJ: UPS, 아마존 배송 절반 축소 방침 유지
- CNBC: 타깃, 경쟁사인 월마트와 코스트코 대비 점유율 하락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 [미국 경제]

#### **Bloomberg: US Productivity Drops for First Time Since 2022 as Output Falls**

#### **미 노동 생산성 2022년 이래 처음으로 하락세**

- 경제 생산이 줄어들면서 미 노동생산성이 거의 3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고용 비용에 따른 인플레이 여파를 완화했던 노동 효율성이 떨어진 것이다.
- 오늘 목요일 연방노동청의 자료에 따르면, 시간당 노동자 생산이 생산성이 작년 4분기에는 1.7% 상향 조정됐으나 올해 1분기에는 연간으로 0.8% 줄었다.

- 기업체가 단위 생산당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고용비가 늘고 있는데 노동 생산성 하락으로 인해 단위 노동 비용은 5.7% 증가했다.

## Bloomberg 기사

**WSJ: Jobless Claims Fell Last Week****지난주 실업 청구 건수는 줄었다**

- 미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했다. 신규 미 일자리 실업 청구 건수는 당초 전문가들의 예상치 23만 건보다 낮은 22만8천 건을 기록했다.
- 계속 받는 전체 실업 청구 건수도 1백88만 건으로 감소해 전체 실업 인구가 줄고 있음을 나타냈다.
- 미 관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며 월별로 4월 일자리는 17만7천 개가 늘었으며 실업률은 4.2%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 WSJ 기사

**WSJ: Why the Fed Isn't Ready to Join Other Central Banks in Cutting Rates****연준은 다른 중앙은행들과 달리 금리 인하하지 않는 이유**

- 어제 수요일 금리 동결을 발표한 연준은 계속 '관망' 입장을 반복하면서 금리 인하에 서두르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 현재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과 다른 나라 간의 통화 정책의 다른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 연준은 지난 2019년과는 달리 최근의 높은 인플레이 때문에 선제적인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반면에 다른 국가들은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들 국가는 수요둔화와 약한 노동시장에 직면하고 있지만 올해 말 연준이 꺾을 수 있는 고물과 여파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WSJ 기사

**[미국 금융]****WSJ: Stocks Rise After Fed Holds Rates Steady and U.S. Prepares for China Talks****연준 금리 동결과 미·중 협상 앞두고 증시 상승**

- 미국과 중국 간에 폭넓은 회담이 시작될 수 있는 협상을 앞두고 S&P 500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연준도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지만 미 관세로 연준은 인플레이 우려로 어려움 상황에 직면해 있다.

- 현재 나스닥과 S&P 500은 0.5% 가까이 상승 중이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0.36% 떨어진 4.31%에서 거래 중이다.
- 한편 디즈니는 파크 이용자들이 증가한다고 발표해 주식이 2.5% 상승 중이다.

WSJ 기사

**[물류]****WSJ: Maersk Says Demand for Shipping Containers Hinges on U.S-China Deal****Maersk, “컨테이너 수요는 미·중 협상에 달려있다”**

- 글로벌 덴마크 해운사인 A.P. Moller-Maersk는 올해 생산품의 글로벌 수요는 미국과 중국이 협상에 도달할지 여부에 달렸다고 말했다.
- 이 회사는 올해 선적량 예상을 1% 감소와 4% 증가 사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당초 올해 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 이 회사는 트럼프의 90일 관세 유예로 2분기의 물량이 증가하겠지만 향후 정확하게 물량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WSJ 기사

**[관세 전쟁]****WSJ: Trump to Announce Trade Agreement With Britain****미·영 관세 타결... 영국산차 10%로 낮춰**

- 미국과 영국 간의 관세가 타결됐다.
- 이에 따르면 미국은 영국산에 보편 관세 10%는 유지하되 영국산 자동차 관세를 10%로 낮추고 철강 관세는 없애기로 했다.
- 대신에 영국은 미국산 쇠고기와 에탄올 관세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영국은 보잉사 항공기를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 한편 미국은 지난달 영국 수입품 대부분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관세율이다. 영국은 또한 3월 12일 트럼프의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25% 관세 적용을 받고 있다.

WSJ 기사

**WSJ: How Will Tariffs Dent Asia Growth? It's Still Too Early to Tell, IMF Official Says****IMF, “미 관세로 아시아 성장 둔화 예상은 아직 일러”**

- IMF 고위 관리의 미 관세로 인해 아시아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겠지만 악영향을 여파가 제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이 기관의 아시아 태평양 부서 부국장인 Thomas Helbling는 “글로벌 교역이 정상적인 룰 상태로 회복된다면 단지 관세를 낮추고 새로운 관세 협상들이 타결되는 것보다 아시아 경제에 대한 타격이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안정된 무역 상황이 얼마나 오래갈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그는 불확실성이 모든 이에게 여파를 주고 있는데 그런 불확실성이 얼마나 갈지가 경제의 여파 강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 WSJ 기사

## Bloomberg: From Apple to GM, Tariffs to Cost Companies Tens of Billions

### 애플과 GM 등 미국 기업들 관세 비용 수백억 불 피해

-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의 관세 조치로 수백억 불의 손실을 수용하는 입장이다. 그것도 관세 인상 품목들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말이다.
- 기업 재정 전망 관련해 GM은 올해 50억불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애플은 이번 분기에 9억 불, 그리고 엔비디아는 수출 통제 때문에 55억 불의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 아래는 주요 미 기업들의 예상되는 관세 비용:

## Bloomberg 기사

## [주택]

## Bloomberg: NYC Homebuyers Forge Ahead on Deals Even as Uncertainty Swirls

### 뉴욕시 주택 구매자들, 불확실성 속에서도 매입 추진

- 4월 맨해튼과 브루클린의 주택 계약은 각각 전년 대비 41%, 36% 증가하며 활발한 거래를 보였다.
- 일부 구매자들은 관세 발표 직후 일시적으로 거래를 보류했으나, 이후 주식시장 반등과 정책 완화 기조가 나타나며 다시 시장에 복귀했다. 중개인들은 매도자들이 현실적인 가격 수용에 나서면서 거래 성사가 증가했다고 전했다.

## Bloomberg 기사

## [오일]

## Bloomberg: Oil Advances as Trump Announces 'Full' US Trade Deal With UK

### 미·영 관세 타결 소식에 오일 상승세

- 미국이 각국들과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영국과 첫 협상 타격을 했다고 발표하면서 유가는 상승했다.
- 서부 텍사스 중질유는 3% 오늘 배럴당 60불에 거래되고 있다. 트럼프는 영국과 “충분하고 포괄적인 타결이 이뤄졌다”고 소셜 미디어에 올렸다.
- 오일 가격은 트럼프 관세로 인한 글로벌 경제 성장과 에너지 수요 감소 우려로 하락세를 보였다. 여기에 더해 OPEC+는 중단된 생산을 예상보다 빨리 회복해 가격이 하락했다.
- 한편 오일가 하락으로 인해 미 셰일 생산 업체들은 Permian Basin에서의 생산을 줄이고 있다.

Bloomberg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NBusiness: Apple looks to add AI search to Safari in potential blow for Google**

##### **애플, 사파리에 AI 검색엔진 도입 검토**

- 애플이 사파리(Safari) 웹 브라우저에 AI 기반 검색엔진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이는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조치이다.
- 이 독점 계약이 종료되면 구글의 시장 점유율에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 구글은 사파리의 기본 검색엔진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애플에 연간 약 200억 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애플 임원 Eddy Cue는 사파리 검색량 감소세가 최근 사용자들이 점점 AI 기반 검색으로 전환하는 추세 때문이라며, AI검색 제공업체들이 궁극적으로 구글과 같은 표준 검색 엔진을 대체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 애플은 이미 시리에 ChatGPT를 통합하기로 오픈AI와 협력했으며, 향후 사파리에 OpenAI와 Perplexity AI 같은 AI 검색업체를 옵션으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광고주들의 검색 광고 예산 분산 가능성도 제기된다.

CNNBusiness 기사

#### **WSJ: UPS Stands by Call to Scale Back Amazon Business Despite New Tariff Challenges**

##### **UPS, 아마존 배송 절반 축소 방침 유지**

- UPS는 2026년까지 아마존과의 배송 계약을 절반 이상 줄이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익성이 낮은 단거리·경량 화물 대신 반품이나 장거리 배송 등 더 수익성 있는 화물에 집중할 계획이다.
- UPS는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 약 2만명의 인력 감축과 73개 시설 폐쇄 등으로 연간 35억 달러 규모의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 UPS는 아마존 비중 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헬스케어 물류 및 중소기업 고객 확대에 집중하고 있으며, 헬스케어 부문 매출을 2026년까지 현재의 약 2배인 200억 달러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 WSJ 기사

## CNBC: Why Target is losing out against competitors Walmart and Costco 타깃, 경쟁사인 월마트와 코스트코 대비 점유율 하락

- 타깃(Target)은 다양성 프로그램 (DEI) 축소로 전국적인 불매 운동에 직면했으며, 1월 말부터 4월 초까지 11주 연속 매장 방문자 수가 감소했다고 Placer.ai가 밝혔다.
- 과도한 재고,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타깃은 매출 정체와 주가 하락을 겪었고, 2021~2024년 동안 0.18%의 시장 점유율을 잃었다.
- 2025년 소비자들은 타깃에서의 지출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쟁사로 소비자들이 분산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브랜드와 디자이너간의 새로운 파트너십 부족과 운영 전략 미흡이 타깃의 부진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 CNBC 기사

## [보고서]

## 미국 경기 안 좋다는데 경제 지표는 양호?

지표 반영되는 데 시간 걸리고  
변동성 클 때는 더 느려

미국에 경기침체가 다가오고 있다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정작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아직 이를 찾아보기 힘들다.

경기 변화가 거시지표로 나타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한 정책기관과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침체가 지표로 나타나기 전에 미리 흐름을 예측하기 위해 온갖 정보들을 살피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전쟁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지표가 이를 반영하는 속도가 느려 전문가들이 여러 민간 자료를 살살이 뒤지고 있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